

‘노란빛 동행’ 세월호 참사 12주기 목포 추모행사 다채

세월호잇지않기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 기억문화제·전시회·기억식·청소년작품공모전 등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세월호가 거처돼 있는 전남 목포에서 다양한 추모행사가 열린다.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세월호잇지않기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는 4월 한달간을 세월호 12주기 추모기간으로 선포하고, 기억식과 기억전시회 등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목포 원도심에 통곶리 전시공간에서는 30일까지 전국에서 활동하는 강연자와 작가 등 17명의 미술작가들이 참여하는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전시회’가 열린다. 전시회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시대적 아픔과 희생자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목포 아트시네마(목포극장 3층)와 목포독립영화관 시네마MM에서는 15~18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상영회’가 개최된다. 15일 개막예정인 작품 ‘주희에게’를 시작으로 16일에는 ‘제로섬’과 ‘S.E.W.O.I.’이 상영되며, 영화 ‘제로섬’의 윤솔지 감독, ‘S.E.W.O.I.’의 제이슨 버니 감독이 함께 하는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된다.

세월호가 거처된 목포신항 선체 앞에서는 16일 참사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를 위로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는 ‘세월호 참사 12주기 목포기억식’이 열린다. 기억식에서는 하늘에 보내는 메시지를 적은 노랑 비행기를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날리는 퍼포먼



세월호 참사기억식.

사진-세월호잇지않기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 제공

스도 펼쳐진다.

이어 19일에는 목포 평화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문화제’가 열리고, ‘제5회 416 생명과 안전 전남청소년 작품공모전’도 진행된다.

세월호잇지않기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 박현숙 상임공동대표는 “2024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이태원, 제주항공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참사에 대해 국가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반성하며 사과가 이뤄져야 생명중중 안전사회로 나갈 수 있다”

고 말했다.

26개의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세월호잇지않기목포지역공동실천회의는 2017년부터 4·16연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의 연대를 통해 세월호잇지않기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오연철 기자

광주시, 시민 참여로 탄소중립 실현 속도

시민실천단 ‘빛고를 넷제로 프렌즈 2기’ 발대식... 시민 50명 참여

광주광역시와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함께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실천단 ‘빛고를 넷제로 프렌즈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시민실천단 50명과 고광안 시장 권한대행, 관계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사업 소개와 향후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탄소중립 이해, 기사작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빛고를 넷제로 프렌즈’는 ‘광주 2045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시민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제2기 실천단은 시민실천 콘텐츠 제작팀과 시민기자단 등 50명으로 구성됐다. 실천단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다양한 콘텐츠와 기사로 제작해 시민 인식 확산에 나선다.

또 전문가 교육과 현장 견학 프로그램



을 통해 콘텐츠 제작과 기사 작성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활동 우수팀과 참여자에게는 시상과 인증서를 제공한다.

고광안 시장 권한대행은 “탄소중립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실천단이 참신한 콘텐츠로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4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18일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모바일메신저 대화방에서 지인 B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내 돈 갚아” 학부모 단체대화방서 거짓 음해 40대 벌금형

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음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선 2022년부터 B씨의 소개로 알게 된 제3자가 투자 수익을 제때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일로 B씨와 갈등을 겪었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아직 돌려받지 못한 월급 이상을 지급하며 문제 제기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A씨는 투자 원금을 더 달라는 요구가 거절당하자 B씨의 평판에 흠집을 내고자 단체대화방에서

협담을 했다. 재판장은 “A씨가 B씨와의 금전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범행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광주시, 17일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연다

성평등가족부와 공동 개최... 맞춤형 상담 등 인증 준비 지원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오는 17일 오후 2시 본부 대강당에서

‘2026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를 열고, 기업의 인증 준비를 지원한다.

‘가족친화인증’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운영,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정부가 부여하는 공인 인증이다. 최근에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평가 등 기업경쟁력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며, 선택이 아닌 필수 인증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증 개요 ▲심사 절차 및 평가항목 ▲심사 기준 등을 안내한다. 또 인증 심사를 주관하는 한국경영인증원에서 구비서류 작성 방법과 사업주 인터뷰 준비 사항 등 실무 중심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가 추진 중인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과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도 소개할 예정이다.

설명회 이후에는 가족친화지원센터의 ‘그룹형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사전 신청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참가 대상은 가족친화인증을 준비 중인 광주·전남지역 기업 및 기관 담당자이며, 신청은 오는 16일 오후 3시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을 통해 가능하다.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지만, 그룹형 무료 상담 참여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양보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가족친화인증은 기업의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설명회를 통해 지역 기업과 기관들이 인증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에는 지난해까지 총 150개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은 세부조사 유예, 출입국 심사 우대 등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사업 우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고 있다. /송현근 기자

쌍육 폭행에 허위 신고까지... 경찰관 공무방해범들 유죄

각종 범죄를 예고하는 허위 전화를 경찰에 걸거나 출동 경찰관에게 모욕적 언사와 폭행을 일삼은 공무집행방해 사범들이 잇따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모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 한 마트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쌍육과 성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밀치며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행범 체포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가족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을 이어가기도 했다.

재판장은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시하는 풍조를 조장하고 사회 안전을 광범위하게 해치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언행 등에 비해 죄책이 무겁다. 피해 경찰관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여러 차례 비슷한 범행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장은 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61)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B씨는 지난해 4월21일부터 23일 사이 광주 광산구 자택에서 3차례에 걸쳐 “불 지르겠다”, “임금 안 준 놈을 죽여버리겠다”,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허위 신고 전화를 일삼아 출동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술에 취해 이같은 화폭이성 허위 신고를 했다.

재판장은 신고 내용과 횟수, 기간, 낭비된 행정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승원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